

두란노 소식

두란노 교회를 방문해주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1. 오늘 특별히 토론토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예배를 섬겨주신 TRUE WORSHIPERS12팀과
추길호목사님에게 감사드립니다.
2. 9월 15일 금요일 저녁예배, 6일 토요일 새벽예배, 17일 주일예배 세 차례에 걸쳐서 아프리카 시에
라리온에서 사역하시는 "안충효 선교사님"이 방문하셔서 선교 간증집회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많이 동참해주시고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3. 10월 8일 주일은 추수 감사주일로 지내며 세례식과 성찬식이 있겠습니다. 9월 17일과 24일 주일,
두 번에 걸쳐 예배 후 셀 모임시간에 세례교육을 받습니다. 세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셀장님들을
통해 신청해 주시고 두 번의 세례 교육에 모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4. 성전 이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전을 위해 함께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5. 기도시간은 매일 저녁 8~10시, 새벽 예배는 화~토 오전 6시, 수요 성경 공부는 수요일 저녁 8시,
금요 기도예배는 금요일 저녁 8시입니다. 영적 생활을 위해서 많이 동참하시고 활용하시길 바랍
니다.

예배 안내

주일 예배 주일 오후 2시
수요 예배 수요일 오후 8:00
금요 예배 금요일 오후 8:00
새벽 예배 화~토 오전 6:00

신앙 상담
647.980.5791
89 Finch W, North york ON, M2NH6



말씀의 은혜와 성령의 운행하심이 있는 _____

두란노 교회
D / U / R / A / N / N / O C H U R C H

SEPTEMBER 3, 2017



섬김의
손길

담임목사 이강화 목사
전도사 조선희 전도사
찬양팀 인도 | 구수진 사모, 강지연, 김샬리
연주 | 김동해, 오준성, 윤유진, 이웅희, 이기준
기술 | 이기훈, 한정훈, 곽지은

대표기도자 10일 박현미 / 17일 강지연 / 24일 기준남 / 10월 1일 이웅희

주일 예배 순서

SEPTEMBER 3, 2017

찬양과 기도	-----	찬양팀 (인도: 구수진 사모)
대표 기도	-----	조정현 성도
헌금	-----	TRUE WORSHIPERS12
성경봉독	-----	예레미야 애가 3:17~26
말씀선포	-----	“항상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
축도	-----	이강화 목사
2부 찬양콘서트	-----	TRUE WORSHIPERS12
두란노 소식	-----	4면에 있습니다

※ 헌금은 예배시간 전에 미리 준비하셔서 헌금함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샘

하나님을 경외함 | 170827 주일예배
시편 34:4~10

구약에서 '경외하다'란 단어를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외하다는 히브리어로 “아레, 파하드, 아라츠, 소하, 포베오, 율라비오마이” 6가지 모두가 구약성경에서 경외하다, 존중하다, 무서워하다라는 단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구약성경에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소개하고 있는 단어는 “아레 Yare”라는 단어입니다. 공포의 두려움이 아닌, 대상을 크고 높게 여기면서 그를 존중하고, 그와 가까이 하길 원하고, 그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그런 두려움을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받게 됨을 수많은 성경구절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시편 128:1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2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3 네 집 안방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네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4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성경을 보면, 욥도,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누구보다 경외하였기에 축복을 받은 자들이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불꽃같은 하나님의 눈을 항상 의식하며 살았습니다. 포악한 왕이

목숨을 위협하고 협박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누구보다 하나님의 눈을 더욱 의식하였습니다. 요셉을 보면,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받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이곳엔 요셉과 자기외에 아무도 없다는 말로 유혹했지만, 요셉은 “하나님께 득죄”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강하게 뿌리치고 그 자리를 빠져나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시뻘겋게 타오르는 풀무불과 성난 느부갓네살왕앞에서 전혀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눈치를 보며 하나님 앞에서 경외함을 나타내었던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둘째,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께로 이끌리는 것입니다. '경외하다'로 번역되는 히브리어 '아레'의 우선적인 의미는 '두려워하다'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의 두려움은 경외의 한 쪽 면이고, 다른 쪽에는 강한 이끌림의 영적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더 큰 인력 때문에 멀리 달아나려는 두려움이 오히려 하나님에게로의 쓸림으로 바뀝니다. 두려움과 이끌림의 팽팽한 균형 가운데 이끌림 쪽으로 기운 모습, 그것이 하나님 경외의 모습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경외함을 잃어버렸고 그와 동시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숨으려 합니다. 경외함을 잃어버린 자의 모습입니다. 갈멜산에서의 영적대결 장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엘리야를 통해 잃어버린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회복되고 불로 응답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가물었던 땅에 다시 비가 내리고 그 땅에 하나님의 축복이 회복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속에 이런 말씀구절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8:30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무심코 지나쳐버릴 수 있는 부분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면서 예배와 하나님을 경외함이 회복되는데 있어서 중요한 준비는 바로 “하나님 예배의 제단 앞으로 가까이 오라”인 것입니다. 예배와 기도의 이끌림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영적으로 강하게 이끌리고 그 이끌림에 순응하고 나아갈 때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시편 128:1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2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로 강하게 이끌리어 삶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고 나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축복된 삶인 것입니다. 시편 34:7 여호와와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 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8 너희는 여호와와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9 너희 성도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10 젊은 사자는 굶핍하여 주릴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두란노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에게 이끌리며 간절히 찾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젊은 사자가 굶핍하여 주리는 극한 상황이 온다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를 찾고 가까이 함으로 부족함이 없이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